

틀에 갇힌 신박한 정리

tvN <신박한 정리>에 나타난 비움에 대한 강요와 여성신화

양수진

신박한 정리를 둘러싼 틀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수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 ‘집’ 관련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원하는 집을 대신 구해주는 MBC 예능 <구해줘! 홈즈>, 전국 명소를 여행하는 tvN <바퀴 달린 집>¹이 그 사례다. 앞서 말한 두 프로그램은 공간의 이동을 소재로 삼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20년 한 해를 위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1 뉴스엔미디어, “[TV와치] ‘신박한 정리’의 진짜 힘, 공감대가 주는 신박한 감동”(2020. 9.2),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009021436505610(검색일: 2020.10.12).

모든 사람들이 최소 생활 범위 외의 이동을 자제하면서 역동적인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정리’를 주제로 한 tvN 예능 〈신박한 정리〉²다. 홈페이지에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로 “물건이 차지한 내 집을 정리하고 공간에 새로운 행복을 더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집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새로운 장소가 아닌 기존의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대중의 관심사와 기존과 다른 느낌의 집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예능인 것이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신박한 정리〉에 힘을 실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무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주거 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³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주거 공간의 이전이 전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현재 자신이 주거하는 공간을 새롭게 꾸미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공간 활용의 방법을 제시하는 〈신박한 정리〉는 시청자들이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트렌드에 발맞춰 대중의 니즈를 반영한 인기 예능이지만, 여러 출연자들의 집을 비우고 공간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적 요소가 있다. 바로 비움에 대한 강요와 여성성화이다. 서강대학교 원용진 교수는 “방송을 통해 신화를 수용한 시청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회 내에서 실천함으로써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신화가 사회 내에서 굳건한 기반을 갖게 된다”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2 2020년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tvN 예능(2020.10.14 기준).

3 《조선일보》, “이사도, 매매도, 전세도 다 가로막는 실거주 의무”, 2020.8.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0170.html (검색일: 2020.10.13).

〈신박한 정리〉에 내재된 신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신박한 정리가 말하는 옳은 것, 비움

정리가 필요한 의뢰인이 정해지면 MC들은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온갖 물건으로 가득찬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다. 단순히 물건의 양을 가늠하고 둘러보는 것만이 아니라 ‘신박한 정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비움’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비움을 위해서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신애라는 〈신박한 정리〉 1회에서 필요와 욕구에 대해 정의했다. 먼저 필요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욕구는 생활에 필수는 아니지만 갖고 싶은 것이다. MC들은 의뢰인에게 필요와 욕구를 설명한 후 세 종류의 박스를 제공한다. 바로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을 담은 필요 박스와, 욕심으로 모았지만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물건을 담은 욕구 박스, 그리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필요 없는 물건을 담은 버림 박스다. MC와 의뢰인은 집 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을 분류해 박스에 담으면서 정리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처럼 물건의 구분을 시작으로 효과적인 정리 방법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예능적 요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메인 MC로 ‘미니멀리스트’ 신애라와 ‘맥시멀리스트’ 박나래가 등장해 게스트의 물건을 비울지 말지에 대해 한참을 옥신각신 귀여운 언쟁을 벌이며 재미를 더한다. 유쾌함을 더하는 두 사람의 대립으로만 보일 수도 있으나 이 대립의 결과에는 비움에 대한 강요가 숨어 있다.

4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한울엠플러스, 2018), 162쪽.

두 MC의 언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쪽은 높은 확률로 신애라다. 박나래와 의뢰인이 합심해 물건의 필요를 주장해도 신애라는 “사진 찍어 놓으면 돼요”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한다. 사진을 찍는 것으로 남길 수 있으니 욕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필요가 아니라 욕구라고 규정한다. 신애라와 박나래, 신애라와 박나래 & 의뢰인의 관계를 통해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 구조를 발견하면 비움에 대한 강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가 “선과 악처럼 대립되는 두 쌍을 기본 구조로 하여 진행된다”⁵라고 했다. <신박한 정리> 속 대립되는 두 쌍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애라 vs 박나래, ② 필요 vs 욕구, ③ 비우기 vs 채우기(물건의 구입 외에도 비우지 않는 것을 포함)이다. 대립에서 승리하는 것은 늘 신애라 쪽이다. 그리고 신애라의 승리는 그녀가 주장하는 필요와 비우기를 선으로 규정하고 박나래가 주장하는 욕구와 채우기를 악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대립 구도와 결과를 보는 시청자들은 은연중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우는 것이 무조건 옳은 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리의 시작에 비움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방송의 내용은 시청자에게 비움에 대한 강요를 전달한다. 그리고 신애라의 의견에 반대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동화되는 ‘맥시멀리스트’ 박나래로 인해 비움에 대한 강요는 더 큰 힘을 얻는다.

욕구의 비움을 아쉬워하는 의뢰인에게 신애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진 찍어놓으면 돼요”이다. 실제로 그녀는 1회에서 자신의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나타낼 수 있는 트로피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사진으로만 남기고 비워냈다고 했다. 물건에는 가치가 없기에 물건을 비워

5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148쪽.

낸 후 그 공간에서 진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목적이
 다. 그러나 비우기 위해 개인이 가지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다. 물건에 갖는 애착이나 생각은 개인차가 있고,
 물건을 매개로 개인이 행복하다면 물건은 ‘나’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물건을 필요로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욕구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으로 남겨두는 방
 법이 있으나 그것이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진에는
 ‘아우라’가 없기 때문이다. 발터 베나민도 사진은 아우라를 가지지 못한
 다고 했다.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것과 실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물건 그 자체가 갖는 아우라에 있다.
 그런데 신애라는 아우라가 없는 사진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비움을 강
 령하게 밀어붙인다. 결국 설득당한 의뢰인은 소유를 포기한다. 이 과정
 을 지켜보는 시청자는 의뢰인의 고민과 소유를 쓸데없는 것이라고 느끼
 면서 무조건 비우는 것이 옳다는 신화를 학습하게 된다.

의뢰인 집에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비움에 대한 강요는 주거 공간
 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이후 의뢰인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굳히기
 에 들어간다. 더 넓어지고 새롭게 구성된 집을 보며 의뢰인은 기쁨의 눈
 물을 흘린다. 그리고 항상 의뢰인에게 “비우길 잘했죠?”라는 물음을 던
 진다. 깔끔하게 변화한 공간을 본 의뢰인은 그 물음에 긍정한다. 그러
 나 의뢰인의 긍정에는 비우는 것이 무조건 옳다기보다는 새롭게 정돈된
 공간에 대한 반가움과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라
 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MC와 공간 정리 전문가의 뿌듯
 한 웃음, 그리고 감격에 찬 의뢰인의 눈물은 의뢰인의 대답 속에 숨은
 진정한 의미를 감춘 채 결국 욕구의 비움만이 공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욕구가 가진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면서 비움에 대한 강요를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욕구도 개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극단적 비움보다는 욕구를 이해하면서 필요와 욕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신박한 정리>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비움이 아니라 나와 내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박한 정리가 규정하는 여성의 영역

공간에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집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살을 부대끼며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이 있는 의뢰인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재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신박한 정리>는 여성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공간을 이야기할 때 성역할, 특히 엄마에 한정된 태도를 보인다. <신박한 정리>가 규정하는 여성의 영역, 여성신화는 ‘장현성 편’, ‘정은표 편’, ‘이준혁 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현성 편’에서 정리 이후의 집을 공개할 때 장현성을 위한 공간으로는 서재가 등장했다. “50대 가장 현성만의 서재를 소개합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서재는 다른 방과 완벽히 분리된 장현성만의 개별적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방송분을 통해 공개된 아내의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안방 화장실 입구에 딸린 화장대가 전부였다. 자막은 “엄마 회정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였다. 서재는 장현성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화장대는 회정 씨가 자아실현을 한다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게다가 회정이라는 이름 앞에 ‘엄마’를 붙였다. 엄

마이자 여성인 회정 씨의 공간은 자신을 가꾸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정은표 편’도 비슷하다. 개별 공간을 서재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부부가 함께 쓰는 안방에 정은표만을 위한 책상을 두어 작은 서재를 완성했다. 하지만 아내 하얀 씨를 위한 공간은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이 전부였다. 가사노동에 지쳤을 때, 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을 때를 위한 공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얀 씨는 남편 정은표의 공간이 생겼다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안방에 남편을 위한 책상은 있는데 아내를 위한 것은 없다. <신박한 정리>가 말하는 아내의 공간은 방 밖의 주방뿐이다.

‘이준혁 편’도 마찬가지다. 방 4개의 집에 5인 가족이 거주하는데 그중 방 2개를 이준혁이 사용하고, 두 아들 그리고 엄마와 딸이 각각 방 하나씩을 공유한다. 이것은 정리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준혁의 덕질방, 옷방을 그대로 남기고 지저분한 물건들을 정리하기만 했다. 이준혁은 <신박한 정리>에 출연한 이유를 말할 때 아내 정진희 씨가 집 안에 가득 찬 물건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으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준혁 집의 경우 이준혁만을 위한 공간 구성에 그쳤다. 여전히 아이들은 개인 방이 없고, 책상은 거실에만 있으며 정진희 씨가 마음 편하게 머무를 공간으로는 주방조차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준혁의 공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방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가족의 행복이 아닌 이준혁의 행복을 위한 집인 것이다.

위의 세 편을 종합해 보면 여성을 위한 공간은 화장대, 주방이거나 아예 없다. 예외로 ‘홍경민 편’에서는 아내를 위한 공간이 나오지만 그것은 원래 집에 아내의 공간이 있었고, 의뢰인 홍경민이 아내를 위한 공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박한 정리> 속에서 여성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게다가 화장대는 여성이 꾸밈노동을 하는 공간이고, 주방은 가사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여성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대와 주방을 여성의 공간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이에 반발하는 여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제대로 된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간 혼자만의 공간이 없는 남편에게 미안했는데 남편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만 한다. 이와 같이 남성이 우선시되는 장면을 통해 시청자들은 가부장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게다가 남성 중심 공간 배치와 여성을 한정하는 여성신화는 신애라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정은표 편에서 깔끔해진 주방을 공개하며 신애라는 “주방은 엄마의 공간이고, 주방이 정리되면 여성은 기쁘다”라고 한다. 엄밀히 따지면 주방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공간이다. 주방은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공간이고, 식사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에게만 주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방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 주방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면 아빠는 설거지를 하고, 자녀는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방을 엄마의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인해 가사노동을 여성의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주방이 정리되면 여성은 기쁘다는 말을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채 여성은 육아와 가정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느낀다는 신화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마, 아내로의 헌신과 보조적 역할만을 강조한 정리 속에서 여성의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고 있다.

틀을 깨고 진정한 신박함을 찾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완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대중문화로서 미디어가, 그리고 방송 콘텐츠가 가져야 할 목표 의식이자 지향점이다. 〈신박한 정리〉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변화한 집에 대한 기쁨과 기대라는 포장으로 프로그램 속에 내재된 신화를 감추고 있다. 프로그램명은 〈신박한 정리〉지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비움에 대한 강요와 여성신화는 전혀 신박하지 못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신화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부하기까지 하다. 이 글의 시작 지점에서 언급했듯이 방송 프로그램에 내재된 신화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박한 정리〉는 욕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가면서 비움에 대해 강요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영역과 역할을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구를 이해하고 필요와 욕구가 적당한 조화를 이루며 찾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누군가의 보조자가 아닌 진정한 ‘나’로서 여성상을 다룰 때 더 성숙하고 완벽한 예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정된 틀을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신박함의 첫걸음이다.